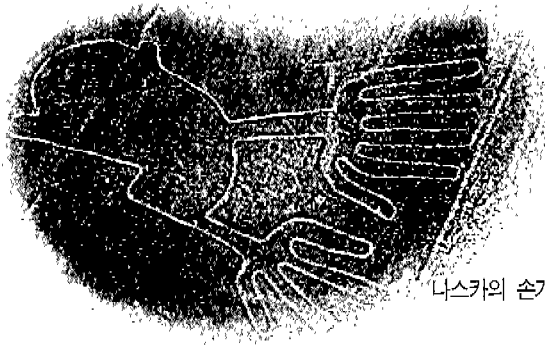


'나스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류 최초의 비행이 있었던 곳

| 편집실 |



나스카의 손가락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비행 역사는 겨우 2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인간은 끝없이 펼쳐진 창공을 바라보며 언제나 날고자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18C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없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속의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는 인류 최초로 비행에 도전한 인물로 구전되었다. 그들은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이어 붙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으나 이카루스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그 열기에 날개의 밀랍이 녹아내려 바다로 떨어져 비운의 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카루스의 비참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푸른 창공을 동경하며 하늘로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르네상스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늘을 나는 '우격식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렸으나 하늘을 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1709년 구스만이라는 사람은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고안했으나 그 역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에 실패하였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최초로 비행기를 설계했다는 토머스 모이의 회전기계는 커다란 프로펠러를 움직일 가벼운 동력원을 찾지 못하여 비행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사람을 태우고 최초로 하늘을 난 것은 날개가 달린 무엇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가득 담은 열기구였다.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발명한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난 것은 장 프랑수와 필라트르였다.(1783년 10월 15일) 이로서 그는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주인공이 된다.

바로 이것이 인류 비행 역사의 시작임은 그 어느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스카 지상그림,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1930년경 비행기가 비교적 보편화 된 후에야 나스카 평원에 신비의 유적이 펼쳐져 있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500km가량 떨어진 이 고원지대에는 새와 거미, 고래, 물고기, 원숭이, 도마뱀, 꽃과 나무 등 동식물의 거대한 그림과 삼각, 사각, 원 등의 기하학적 도형이 산재해 있으나 이는 모두 창공에서 내려보아야만 비로소 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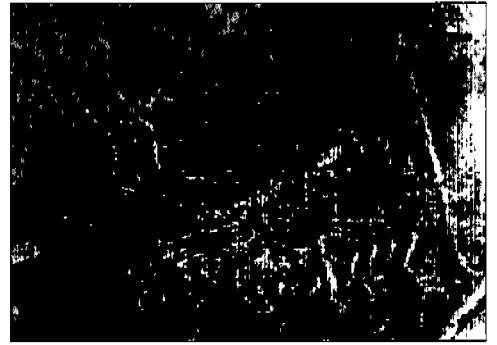
그림들은 약 2000여년 전 잉카족 이전에 페루 전역에 걸쳐 살았던 나스카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추정된다. 이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황량한 사막에 지상회화(地上繪畵)를 그려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곳이 유적들이 보존되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유적이 자리한 사막지대의 평원은 10년에 한번쯤 안개비가 불과 30분정도 내릴 뿐, 바람마저도 수그러드는 무풍지대의 척박한 자연 환경이야말로 2000여년 전에 그려진 지상회화를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시켜온 천혜의 조건이 되었다. 문제는 고대 나스카인들이 땅 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든 간에 하늘위로 날아오르지 않았던 이상 그들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그림들은 작은 것은 대략 100m에서 큰 것은 직선으로 7~8km 까지 단 몇 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며 지상에서는 단지 그림을 이루고 있는 끝없는 선만을 볼 수 있을 뿐 그림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상공으로 300m이상 올라야만 한다.

나스카의 지상그림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 크기와 용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고,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거대한 그림을 남겼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구최대의 천문책이라는 설

과학자들이 나스카 부근 사막에 있는 이상한 부호들에 주목을 한 것은 1941년부터였다. 이 신기한 그림 유적을 처음 조사한 사람은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의 폴코스크 박사였다. 그는 나스카의 건조한 평원 위에 펼쳐진 그림을 공중에서 살펴본 뒤 '세계최대의 천문력'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나스카의 거미

그의 뒤를 이어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마리아 라이헤 박사는 이곳을 답사하고 거의 50년이 넘게 페루연구에 몰두했다. 박사는 나스카의 그림들이 BC300~AD80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그림들이 나스카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유적에 남아있는 나무들의 방사성 탄소측정 결과나 나스카의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나스카선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이 근처에 나스카 사람들이 살고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고대 나스카인들이 유적지의 그림들을 건설하였던 걸로 보았다. 그녀는 유적지의 그림들이 천체(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를 예언하는 것으로 춘분, 추분, 월식 등의 천체의 변화를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다.

1968년 National Geographics Society역시 나스카의 선들이 2000년 전의 태양과 달과 어떤 별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학설이 발표된 후 1973년 천문학자인 제럴드 S. 호킨스는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를 시도했는데 나스카 그림에 대한 일반적인 천문학적 해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

그는 나스카에 있는 93개의 그림들과 45개의 별에 관해 측정된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 나스카 선들의 배열과 BC 5000년 이후 해와 달과 별이 차지했던 위치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

나 대답은 실망적인 것이었다. 일치가 되는 배열도 몇 개 있었으나 우연의 일치에 불과했고, 컴퓨터는 나스카 그림의 선들이 달력을 이루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종교적 문양이라는 설

Johan Reinhard는 나스카의 많은 선들이 종교적인 성지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레인하드에 따르면 나스카인들은 산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안데스 산에는 많은 신들(그들은 독수리나 콘돌의 형상을 했음)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날씨와 물과 곡식을 풍성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덧붙여 신들의 우두머리인 비로체(Viracocha)는 산, 물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외계문명설

전 세계에 UFO와 외계문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무렵, 이스터 섬이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 Erich Von Daniken은 나스카의 그림 역시 외계문명의 잔재라고 주장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니켄에 따르면 외계인은 고원에 도착해 두 개의 활주

나스카의 촛대



로를 건설했다. 외계인들이 고원을 떠난 후 원주민들은 사라진 신(외계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고, 그들의 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 보태게 되었다. 그는 '안데스의 촛대'로 불리는 길이 250m의 삼지창 모양의 도형이 정확히 서쪽의 피스코만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비행물체에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방향표시라는 설을 주장하며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 유적이 하늘에서 온 신들의 신호로 '진진하라'라는 의미로 전해져 온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는 오늘날의 제트기와 비슷한 형태의 황금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상상한 이론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주선착륙장으로 쓰일만큼 땅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았고, 두번째로 우주 비행장으로서 쓰이기에는 폭이 너무 좁았다. Erich Von Daniken는 동물모양의 지리문자(Geoglyph)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위의 세가지 학설은 나름대로 의미와 논리가 있으나 아직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상 그림이 천문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발굴된 다른 유적이나 이 그림이 있는 고원에서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단서가 발견되어야 할 텐데도 그 학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비행설

근래에 제시된 있는 가장 유력한 설은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었으며, 이 그림 역시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그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우주 조종사였던 짐 우드맨과 페루에 머물던 빌 스폴러에 의해 주장된 이 학설은 나스카인들의 유적에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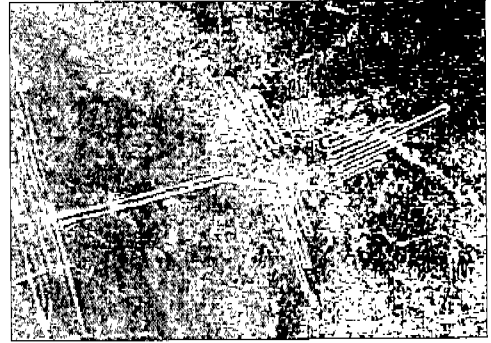
증거 1 : 나스카인들의 무덤 등에서 발견된 도기에 기구와 연처럼 보이는 끈을 늘어뜨리면 서 비행하는 물체의 그림이 수없이 그려져 있다.

증거 2 : 나스카인의 무덤에서 현재의 낙하산의 재료보다 더욱 가늘고, 기구를 만드는 섬유보다 더욱 촘촘하게 짜여진 직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직물에 날고있는 남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증거 3 : 현재도 중남미 지방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는 작은 열 기구나 연을 하늘로 띄워 보내는 풍습이 남아 있다.

증거 4 : 유적지의 그림 끝 부분에 검은 돌들이 놓여 있는데 분석 결과 극심한 열에 의해 검게 변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열 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큰불을 피운 증거로 생각된다.

우드맨과 스폴러는 나스카인의 비행설을 주장하며 과거 나스카인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행 시험을 한다. 먼저 그들은 고대 나스카인의 유적에서 나온 직물과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을 본떠 기구를 만들어 마침내 고대 나스카인과 같은 방법으로 하늘을 날 수 있었다. 우드맨과 스폴러의 실험은 비록 3분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고대의 방법을 그대로



나스카의 벌새

로 재연하여 성공한 것이며, 지금까지도 가장 유력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나스카 유적은 아직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지상그림들 중에서 가장 경이적인 도형이라는 유적지의 북쪽 가장자리에 가로 놓여있는 '벌새모양(Humming Bird)'의 그림은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다. 이 도형의 맨 끝 가장자리에서 경사면의 꺾어지는 윗 부분에는 암석이 녹아 두껍게 엉겨붙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섭씨 2천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한데 당시 나스카인의 문명으로 이 정도의 열처리 기술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 나스카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려진 그림을 그렸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물을 분석하여 역사로 기록되기 전의 고대인들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 다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지식과 과학적 재능을 가지고 상상 이상의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 볼 뿐이다.